

완주군, 수요응답형버스 시범운영

이서면 일원 원금평 등 17개 마을 선정 출발지에서 30분전 사전예약제로 운행

완주군은 8월 1일부터 이서면 17개 마을에 수요응답형버스가 시범 운행된다.

이번 수요응답형버스 시범운영 마을은 이서면 10개리 38개 마을 가운데 시내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 진입도로 버스 교통 가능여부, 버스 회차지 확보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현지 실사를 거쳐 17개 마을을 선정했다.

운행방식은 주민 요구에 따라 운행하되 각 마을에서부터 이서면 소재지까지 1회 이용료 500원으로 운행되며, 버스운행은 12인승 1대로 이서면수안전협동조합에서 담당한다.

일명 '콜버스'라 불리는 수요응답형버스는 출발지에서 30분전 사전예약제로 운행되며, 이면에 운행되는 이서면 일원 17개 마을은 원금평, 신흥, 개태, 신정, 원용서, 장동, 신월, 지산, 모고지, 초남, 신기, 수청, 흥계, 정봉, 상금, 하금, 갈동 마을 등이다.

이서면 원용서 마을에 거주하는 최모(76세)씨는 "동네 도로폭이 좁고, 시내버스가 들어올 수 없어 인근 승강장까지 가려면 700m이상 걸어가야 되고, 버스가 많지 않아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에 마을버스가 운행되어 매우 기대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전했다.

이흥래 건설교통과장은 "동상지역에 시범운영중인 수요응답형 버스가 주민들로부터 만족도가 높아 완주군에서 교통취약 지역인 이서면에 대해 확대 시행하게 됐으며, 매일 이용자의 탑승목적, 이용회수, 시간대, 승차거리 등 다방면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분석 및 모니터링을 거쳐 지속운영 및 중단 등에 대하여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행하는 이서면 수요응답형버스는 2015년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행하는 완주군 동상면에 이어 두 번째로 운행된다.

/완주=이종복기자

무주 반딧불축제 탐사환경 실태조사

군, 메인 프로그램 반딧불이 신비탐사 원활한 진행 위해

무주군이 8월 27일부터 개최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메인 프로그램인 반딧불이 신비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탐사 예정 지역에 대한 탐사환경 실태조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읍과 안성면, 적상면 지역 6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식환경을 비롯한 탐사구간의 위해요소를 점검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 군은 축제까지 남아있는 기간 최적의 탐사지를 탐색해 탐사객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난해에도 9일 간 6,850명이 참가(서투버스 179대 운행)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모았던 반딧불이 신비탐사는 살아있는 반딧불이를 찾아가는 여정으로 달빛, 별빛을 길잡이 삼아 한적한 시냇길을 걸으며 반딧불이의 혼인비행을 보는 재미가 특별하다.

그간 도보로만 진행하던 탐사방식은

올해는 뗏목까지 확대할 예정이어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인터넷 접수(www.firefly.or.kr)와 현장접수(당일 10:00~18:00)를 통해 참여(서투버스 승강장 접수 시 안내)할 수 있으며 체험비는 인당 8천 원(36개월 미만 무료)이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축제 시기가 늦반딧불이 출현시기로 변형이 되면서 신비탐사도 제대로 진가를 발휘하고 있다"며 "탐사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몰지역 조사부터 탐사로 정비, 탐사여정을 챙기는 일까지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환경지표곤충이자 천연기념물(제322호)이기도 한 반딧불이는 기후나 습도 등 자연환경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탐사 당일의 일기상황에 따



라 많은 변수를 동반하지만 반딧불이 서식지로 직접 가서 반딧불이의 발광과 비행을 즐겨보는 신비탐사는 반딧불축제 프로그램 중 선호도와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 수강생 모집

무주군은 마을 활동가 양성 교육에 참가할 수강생 30명을 오는 3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무주군 관내 거주 주민들과 예비 귀농·귀촌인으로 신청은 방문접수(무주군청 마을만들기 사업소)와 이메일(hohoi13@naver.com) 접수(홈페이지에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제출)로 하면 된다.

교육은 오는 10일부터 11월 2일까지(매주 수요일 13:30~17:50) 진행될 예정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해와 △농촌관광네트워크, △로컬푸드의 재인식 및 변화, △마을 활동가의 중요성, △지역관광 명소와 방안, △농촌상품 스토리텔링과 홍보마케팅 강화 방안, 마을만들기 활성화 사례 등을 듣게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19일까지 프로그램 참가신청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추진위원회는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8월 19일까지 각종 프로그램 참가신청접수를 받는다.

접수 프로그램은 사과수확체험, 적과의 동침, 전국한우콘포나르기 대회,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 한우랑사과랑 가요제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장 인기프로그램인 '장수사과수확체험'은 수확을 앞둔 사과밭에서 직접 사과를 수확해 보는 체험으로 가족단위 관광객과 아이들에게 최고의 호응을 얻고 있다.

청정한 장수의 대자연속에서 1박을 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축제의 재미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적과의 동침'은 또 다른 축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한우콘포 나르기 대회'는 한우 먹이로 이용되는 대형 콘포를 나르는 프로그램으로 우승팀에게 상금이 주어지며 직장이나 동호회를 중심으로 참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처음 선보인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아라'는 장수군의 대표 Red Color인 농산물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토마토를 던지고, 밟고 으개며 토마토 속 황금반지를 찾는 놀이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방문객들의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 홈페이지(www.jangsufestiva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진안군, 행복 흙씨 입양사업 협약 체결

진안군은 지난달 28일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민간단체 및 기업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흙씨 입양사업 MOU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6월부터 행복흙씨 입양사업 단체를 모집한 결과 관내 자연보호중앙연맹진안군협의회를 비롯한 용담호수질개선주민협의회, 지역주민, 기업체 등 42개 단체 및 기업체가 입양단체로 참여해 행복흙씨 사업설명회와 협약서 낭독 및 진안군과 입양단체 간 협약 서명으로 진행됐다.

행복흙씨 입양사업은 관내 2km 이내 일정구간을 지역주민,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기업체 등이 입양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중심으로 청소활동 및 꽃 가꾸기를 전개하고,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활동을 민들레 흙씨처럼 세상에 퍼트리자는 취지로 추진하는 환경정화 활동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입양단체는 자율적인 입양지역 청소, 꽃 가꾸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고 그 결과를 군에 통보하게 되며, 군은 안내표지판 설치, 쓰레기 수거 등 입양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쓰레기봉투 등을 지원한다.

이항로 군수는 "이번 사업이 민간인 주도의 활동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모든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단체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생활환경의 클린문화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군의 역점사업인 쓰레기 3NO운동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안군-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 진안고원 명품수박 홍보행사

진안군과 진안마이산조합공동사업법인이 지난달 29일부터 3일간 농협유통 하노마트 양재점에서 대대적인 진안고원 명품수박 홍보행사에 나섰다.

이번 판촉·홍보행사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안호영 국회의원, 김철철 도의원, 박명석 군의원, 군의원, 조합장, 공선출하회장, 향우회원 등 30여명이 함께 진안수박의 우수성 홍보를 하고 시식 행사 등을 펼쳤다. 진안고원 수박은 홀플러스 등 대형유통매장에 지속적으로 출하되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올해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2억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비파괴당도 선별기를 교체하여 품질향상과 자동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소비자들에게 당도 높은 수박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왔다.